

2024.2.13 (화)

주식 시장

Analyst 이수정
02. 6454-4893
sj_lee@meritz.co.kr

RA 이상현

02. 6454-4904
sanghyeon.lee@meritz.co.kr

코스피	+1.12%
코스닥	+2.25%
코스피200	+1.16%
Nikkei225	+2.89%
상해종합	+1.28%
항셱	-0.83%
S&P 500	-0.09%
Dow	+0.33%
NASDAQ	-0.30%

Advanced RISC Machines

- 한국 설 연휴 기간 미국 증시에서는 Arm 주가가 3거래일 동안 +93% 상승. 지난 분기 실적은 물론 향후 가이드نس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Arm은 모바일 칩 설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인 기업으로, 주된 수입원은 반도체 설계 판매를 통해 얻은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 회사는 반도체 시장 전반이 회복세이며 스마트폰 시장 역시 회복 신호가 보인다고 언급. 특히 On-Device AI 시대의 도래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해 향후 실적도 긍정적이라며 자신감을 피력
- 호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은 미국 시장에서 평범한 현상이지만 Arm의 주가 강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배경은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할만한 수급적 요인. (a) 작년 9월 신규 상장해 깨끗한 주주명부, (b) 대주주인 Softbank 지분이 90% 이상으로 유동주식비율이 낮은 품절주, (c) 숏 스퀴즈 발생하기 좋은 환경(작년 말 기준 Arm 공매도 잔고 930만주 = 유동가능주식수의 약 10%,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 (d) 과거 Tesla 폭등 때처럼 Arm 상승에 베풀었던 콜옵션 매수로 미결제약정 증가 → 콜옵션 매도자의 델타 헤지를 위한 Tesla 주식 강제 매수
- 외국인 KOSPI 현물 +9,448억원, 선물 +9,499억원 순매수. KOSDAQ 역시 작년 12/27 이후 처음으로 일간 2천억원 이상 순매수(+2,573억원). SK하이닉스(+5.0%)는 삼성전자(+1.5%)와의 격차를 다시 좁히며 52주 신고가 경신, 역사적인 150,000원 도달. 반도체 전반 강세(티에스이 +17%, 에스티아이 +10%, 파크시스템스 +9.2%, 테크윙 +7.4%, 케이씨텍 +5.9%, 파두 +5.8%, 고영 +5.3%, 동진세미캠 +4.6%, 한미반도체 +3.2%)
- Arm과 연관된 IP 및 칩 설계, On-Device AI 테마 급등(HPSP +21%, 퀄리티스반도체 +16%, 오픈엠티테크놀로지 +15%, 에이직랜드 +14%, 칩스앤미디어 +13%, 리노공업 +8.4%, 에이디테크놀로지 +7.1%). 특히 가온칩스(+27%)는 AI 반도체 ASIC 설계 개발 계약 공시로 장중 상한가에 가기도 함(일본향, 계약기간 2년, \$4,200만 =557억원=연간 매출액 대비 128%)
- 한국 시간 오늘 개장전 발표된 MSCI 분기 리뷰 결과도 반영. Global Standard Index 편입종목은 2개 = 예코프로머티(+22%), 한진칼(장중 고가 +15.6% → 종가 -1.2%), 편출 종목은 5개 = F&F(+0.7%), 호텔신라(-2.2%), 현대미포조선(-7.0%), JYP Ent.(-2.1%), 펄어비스(-0.5%). 시가총액 4조원 부근의 다음 MSCI 편입 후보군 전반 급등(HPSP +21%, 알테오젠 +13%, 엔켐 상한가). 이는 반도체에서 헬스케어, 2차전지(엔켐), 로봇 등으로 확산되는 명분 제공
- 로봇(에브리봇 +23%, 삼익THK +24%, LIG넥스원 +4.1%, 두산로보틱스 +3.2%), 헬스케어(알테오젠 +13%, 셀트리온 +4.4%, 유한양행 +3.6%, 한올바이오파마 +8.3%, 삼천당제약 +6.2%, 레고켐바이오 +8.8%, 케어젠 +14%, 팜트론 +14%, 아이센스 +6.4%, 툴젠 +7.7%), 2차전지(울촌화학 +17%, 탑머티리얼 +16%, 레이크머티리얼즈 +13%, 솔브레인홀딩스 +11%)
- 중소형주 단에서는 MSCI Small Cap 편출입 결과도 반영(Global Standard Index 편출 종목은 Small Cap 편입)
 - * MSCI Small Cap 편출입
(편입) 씨앤씨인터내셔널, F&F, 가온칩스, 한글과컴퓨터,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제주반도체, JYP Ent.,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주, 펄어비스, 솔브레인홀딩스, 쌍용C&E, 시노펙스, 유티아이
 - (편출) 이오플로우, KG ETS, 태광, 영풍제지
- 2/26~29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 전시회(MWC)를 앞두고 통신주 상승(서진시스템 +12%(호실적), 한국항공공우주 +4.1%, 인텔리안테크 +6.2%). 푸틴 '중전 협상 가능' 언급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상승(삼부토건 +28%, 웰바이오텍 +18%, 리노스 +18%). 비트코인 \$5만 회복(매커스 +17%, 우리기술투자 +9.1%, 네오위즈홀딩스 +6.2%, 한화투자증권 +4.7%)
- 개별주 매매도 활발. LS머티리얼즈 +6.2%(에코프로머티 상승), LS에코에너지 +10%(희토류 등 신사업을 위한 2,000억원 투자 유치 계획). 한미사이언스 +7.0%(2/21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대한항공 +3.5%, 아시아나항공 +5.6%(2/14 EU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기한, 신성델타테크 +9.4%(3/3~8 APS 학술대회 PCPOSOS 초전도 가능성 주장), 자화전자 +7.5%(핸드셋), 케이아이엔엑스 +5.2%(서버), 뷰노 +13%, 코어라인소프트 +7.6%, 제이엘케이 +5.6%, 루닛 +4.8%, 셀바스AI +4.1%(의료AI), 고영 +5.3%, 원텍 +5.8% (의료기기), 크래프톤 +7.5%, 데브시스터즈 +4.3%(게임)
- 저PBR은 대장인 현대차가 장중 고가 +4.8% → 종가 -0.4%로 차익 실현이 몰림. 대신 오늘은 기아(+3.5%)의 약진. 또한 롯데손해보험이 저PBR + 매각 압박 기대에 상한가. 매각주관사 JPMorgan은 최근 원매자와 1대 1 미팅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롯데손보의 작년 3, 4분기 누적 CSM(보험계약마진)은 2.2조원으로 시가총액 1조원은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라는 인식. 흥국화재도 저PBR + 호실적에 힘입어 상한가. 롯데쇼핑(-7.7%) 등 업황을 무시하고 올랐던 종목은 약세를 보였고, 소수 종목의 재발견(동국산업 +19%, 키움증권 +5.1%, 다우기술 +8.5%, 힐라홀딩스 +4.5%, 아세아 +4.7%, 동양생명 +3.3%, 한화손해보험 +4.2%). 한국전력(+4.4%) 상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 기대감에 따른 듯(한전기술 +3.2%)

11. Arm 12개월 후행(TTM) PER은 1,802배로 Nvidia의 94배보다도 훨씬 높아짐. 3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고, 제2의 Nvidia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하다는 증거(AI frenzy). Sam Altman의 \$7조(약 9,300조원) 규모 AI 반도체 펀딩 아이디어는 밸류에이션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 KOSPI는 이제 PBR 1배가 되려하지만 S&P 500 지수는 5,000pt를 넘어서며 미국 내에서는 소수 Tech 주식 위주의 과열 의견 점증. 강세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 오늘밤 미국 CPI 발표가 숫자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단기 차익실현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어 주목

52주 신고가/신저가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SK하이닉스	150,000	5.0%	109,200.4	13.8	1.65
KB금융	69,700	3.1%	28,124.7	5.4	0.43
신한지주	44,500	0.8%	22,817.8	4.8	0.40
삼성생명	83,200	0.2%	16,640.0	8.2	0.34
한국전력	21,300	4.4%	13,673.8	7.0	0.37
크래프톤	230,000	7.5%	11,123.8	16.9	1.66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현대미포조선	62,700	-7.0%	2,504.4	33.8	1.19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량 급증 & 장대 양봉/음봉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SK하이닉스	150,000	5.0%	109,200.4	13.8	1.65
기아	117,200	3.5%	47,119.6	5.2	0.85
셀트리온	187,500	4.4%	40,871.4	34.8	6.93
KB금융	69,700	3.1%	28,124.7	5.4	0.43
에코프로머티	209,500	21.9%	14,452.4	-	-
한국전력	21,300	4.4%	13,673.8	7.0	0.37

종목명	종가(원) (12/5)	수익률 (1D)	시가총액 (십억원)	12MF PER(배)	12MF PBR(배)
POSCO홀딩스	438,000	-3.3%	37,042.2	15.3	0.59
HMM	17,820	-3.0%	12,278.7	10.6	0.53
코웨이	59,700	-3.7%	4,405.8	8.1	1.35
CJ	103,500	-4.0%	3,019.8	10.1	0.60
LS	93,000	-4.9%	2,994.6	7.3	0.52
현대미포조선	62,700	-7.0%	2,504.4	33.8	1.19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